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및 성격특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성격특성의 중재역할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Personality Traits a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Friendships Quality
: Moderation Role of Personality Trait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윤미선*

교수 박성연**

강사 이은경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Yoon, Mi-Sun

Professor : Park, Seong-Yeon

Lecturer : Lee, Eun-G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relationship with parents, personality traits and friendship q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373 college students (mean age=20.45, 53.6% girl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IPPA-R(Raja, McGee & Stanton, 1992) and IPIP(Goldberg, 1999). Pears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1)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have positive experiences with parents positive experiences with their friends. 2) For male college students, extro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riendship quality. However, for female students, only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riendship quality whereas neuroticism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riendship quality. 3) A good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ly interacted with conscientiousness of personality traits in predicting male students' friendship quality. For female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extroversion was found in the link between relationship with mother and friendship quality.

▲주요어(Key Words) : 부모-자녀 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 친구관계(friendship quality)

* 주저자 : 윤미선 (E-mail : bonitoms@hanmail.net)

** 교신저자 : 박성연 (E-mail : psy@ewha.ac.kr)

I. 서론

친구관계는 인간의 전 인생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친구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친구관계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그 이후의 시기에도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Chu et al., 2001), 대학생들의 적응이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김순혜·김정원, 2004; 성미혜, 2008). 또한 청년기 초기부터 급격히 발달하는 친구관계는 양과 질 면에서 청년기 후기의 대학생들 삶에 중요한 관계로 부상하게 된다(고윤주 등, 2002).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 중에서 비혈연 친구 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에 달한다. 더욱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만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은정 등, 1995), 대학생들은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는 상대로 동성 친구를 뽑는다고 한다(김재은 등, 1998). 한편, 대학생의 친구관계는 발달적으로 볼 때, 사회 정서적 지원과 서로에게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와 함께 친구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도 증가한다(고윤주 등, 2001; 이은혜 등, 2000).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든 여전히 친구관계는 중요한 한편, 대학생의 친구관계는 특히 친밀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유아기나 아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학생의 친구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또는 친구관계의 질에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사회적인 지지원으로서 또는 스트레스원으로서 작용하는 친구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기초를 둔다.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이란 자녀와 양육자간의 친밀하고 강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로서, 애착형성과정에서 양육자의 민감한 양육행동은 애착의 질을 결정짓게 된다. 양육자에 대해 형성한 안정 또는 불안정 애착 유형은 내적 작업모형으로 부모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및 기대의 기초가 되어 앞으로의 인간관계의 모델 또는 지침이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의 질은 이후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어린시기에 부모와 맺은 긍정적인 애착이 이후의 친구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성은경, 2006; 홍주영·도현심, 2002;

Kerns et al., 1996). 또한 몇몇 연구에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보다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양혜선·한종철, 2004; Kenny & Donaldson, 1991) 보고되고 있어,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대학생의 친구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함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애착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도 자녀의 친구관계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김진주, 2001; 박원모·천성문, 2008; 신지영, 2003).

이외에도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 6학년 여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이 친구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정백·윤미현, 2008),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다른 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혜연, 1999). 한편 초등학생과는 달리,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은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선호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채혜연, 1999)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유아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져 왔기 때문에,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질이 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장휘숙(2008)에 의하면, 기질적 특성이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통제력이 보다 발달함에 따라 기질적 특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조절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기질을 구성하는 기본 경향성들은 인생 초기부터 나타나지만, 생의 초기의 기질적 특성은 환경적 경험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Goldsmith & Campos, 1990; Gunnar & Nelson, 1994). 따라서 타고난 기질은 주위 환경의 영향과 함께 성격의 틀을 이루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친구관계에는 타고난 성향인 기질보다는 개인이 받아들인 양육이나 환경적 영향으로 변화된 성격특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성격특성과 친구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애착관계와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들보다 비교적 관심을 적게 받아왔으며 대체로 친구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 비인기아동과 인기아동과의 성격특성을 비교한 연구들(김혜진, 2001; 변인섭, 2000)

이나 또는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양상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들(김희선, 1998; 문이도, 1993; 조영란, 2005)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은 경우 비교적 긍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나타낸 반면, 신경증이 높은 경우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요인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 본 조영란(2005)에 의하면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독립적이고 동정적이며 사교적인 성향과 같은 비교적 긍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경증이 높을수록 지배적이고 경쟁적이며 반항적인 성향과 같은 부정적 대인관계 성향이 높았다. 한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과의 관계를 살펴 본 최영임과 장휘숙(2007)에 의하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친구관계를 예측하는 중요 변수(Armsdem & Greenberg, 1991)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특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영임과 장휘숙(2007)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성격특성은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성격과 일반적인 대인관계, 성격과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 연구가 있을 뿐,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격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5요인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격특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사회성이 낮을수록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김혜진, 2001)는 연구가 있는가하면,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는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가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문이도, 1993)도 있어 비일관적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에 따라 성격특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친구관계를 예측하는 변인들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모와의 관계나 성격특성은 또한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몇몇 연구에서 시사되고 있다. 즉, Kerns와 Stevens(1996)에 의하면, 아버지에 대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남학생들은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장휘숙(2001)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형 애착모형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고, '외향성'과 '친화성'이 높았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 성격특성, 친구관계 간에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부모와의 관계와 성격특성이 독립적으로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와 성격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아동이 타고난 특성은 환경적인 질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Horowitz, 1987)는 점에 근거해 볼 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갖고 있다면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예민하고 불안한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좋다면, 친구관계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및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의 중재역할을 규명하고, 이러한 관계가 대학생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는 친구관계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 대학생의 성격특성 각 유형(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은 친구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간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은 중재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73명(남자대학생:1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여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각각 20.5세(SD=.64)와 20.4세(SD=.60)였으며, 연구대상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대부분이 51~54세(46.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45~50세(64.9%)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성격에 관한 질문지 척도로 모든 질문지에 대해 대학생 자신이 보고하였다.

1) 부모와의 관계 척도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rmsden과 Green-

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Raja, McGee와 Stanton(1992)이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와 모의 애착 척도는 각각 25문항으로 문항내용은 동일하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신뢰요인이 10문항, 의사소통요인은 9문항, 소외요인은 6문항이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서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를 역코딩하여 모든 문항을 합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총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 되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와의 관계 척도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Cronbach's $\alpha = .92$, 어머니와의 관계는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2) 친구관계 척도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Raja, McGee와 Stanton(1992)이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신뢰요인이 10문항, 의사소통요인은 8문항, 소외요인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서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를 역코딩하여 모든 문항을 합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 되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친구관계 척도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3) 성격특성 척도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Goldberg, 1999)를 유태용 등(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친화성(Agreeableness)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하며, 각 요인 당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0문항이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격특성 척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87, .85, .73, .74, .76으로 나타났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교 1, 2학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450부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410부 중 일부 자료가 미비하거나 연구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373부가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관련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남녀 대학생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기초분석으로 부모와의 관계, 성격 특성, 친구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에서 그리고 성격요인 중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친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실성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방성과 외향성은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 참조).

2.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인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남녀 대학생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니와의 관계는 친구관계와 .30~.43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2> 참조). 즉, 남녀 대학생 모두 아버지나 어머니와 관계가 친밀할수록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2>인 남녀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3> 참조), 남자 대학생의 경우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친구관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

<표 1>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차에 대한 t 검증

(N=373)

| 변인 | 남학생 (N=173) | 여학생 (N=200) | t |
|---------------|----------------|----------------|----------|
| | M(SD) | M(SD) | |
| 부모와의관계 | | | |
| 부와의 관계 | 3.44(.59) | 3.56(.62) | -1.98* |
| 모와의 관계 | 3.57(.56) | 3.74(.58) | -2.77** |
| 성격특성 | | | |
| 신경증 | 2.70(.62) | 3.04(.75) | -4.81*** |
| 외향성 | 3.32(.61) | 3.38(.65) | -1.01 |
| 개방성 | 3.34(.47) | 3.33(.50) | .22 |
| 친화성 | 3.52(.45) | 3.65(.48) | -2.63** |
| 성실성 | 3.25(.50) | 3.11(.59) | 2.48* |
| 친구관계 | | | |
| 친구관계 | 3.66(.44) | 3.90(.41) | -5.38*** |

*p<.05, **p<.01, ***p<.001

<표 2>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관계
(N=373)

| | 친구관계 | |
|--------|----------------|----------------|
| | 남학생 (N=173) | 여학생 (N=200) |
| 부와의 관계 | .36*** | .37*** |
| 모와의 관계 | .43*** | .30*** |

***p<.001

<표 3> 남녀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
(N=373)

| 성격특성 | 친구관계 | |
|------|----------------|----------------|
| | 남학생 (N=173) | 여학생 (N=200) |
| 신경증 | -.15 | -.20** |
| 외향성 | .29*** | .29*** |
| 개방성 | .16* | .01 |
| 친화성 | .45*** | .26*** |
| 성실성 | .18* | -.03 |

*p<.05, **p<.01, ***p<.001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같은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경증은 친구관계와 상관이 없었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자 대학생 역시, 외향성과 친화성은 친구관계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외향성, 친화성과 같은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여자 대학생의 친구관계

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과는 달리 여자 대학생의 친구관계는 신경증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신경증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대학생과 달리 여자 대학생의 개방성 및 성실성은 친구관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4.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의 중재역할

<연구문제 3>인 부모와의 관계와 성격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8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변인에서 높은 상관이 나타난 결과와 더불어,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김선주, 2001; 박원모·천성문, 2008; 신지영, 2003; 장정백·윤미현, 2008; 채혜연, 1999)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와의 관계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또 다른 독립변인인 각각의 성격특성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아버지와 관계(어머니와의 관계)와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 성격특성 요인 중 성실성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상호작용하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1, p < .001$, <표 4> 참조). 즉, <그림 1>

<표 4> 남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아버지와의 관계와 성실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N=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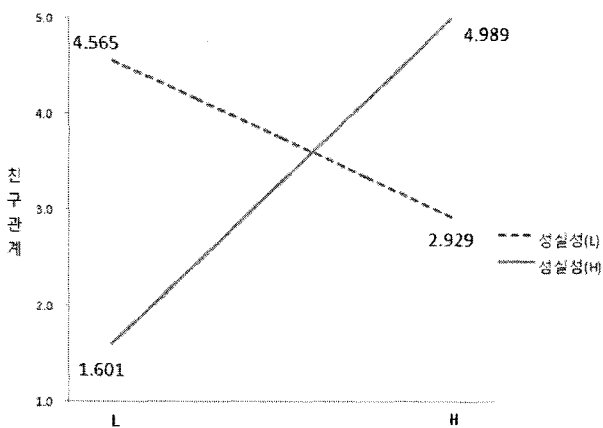
| 변인 | 친구관계 | | |
|-----------------|----------|----------|----------|
| | Model 1 | Model 2 | Model 3 |
| 부와의관계(A) | .36*** | .34*** | -.97** |
| 성실성(B) | | .07 | -1.19** |
| A X B | | | 2.11*** |
| R ² | .13 | .14 | .20 |
| ΔR ² | | .01 | .06 |
| F | 25.75*** | 13.25*** | 14.29*** |
| (df) | (1,172) | (2,172) | (3,172) |

p<.01, *p<.001

<표 5> 남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어머니와의 관계와 성실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N=173)

| 변인 | 친구관계 | | |
|-----------------|----------|----------|----------|
| | Model 1 | Model 2 | Model 3 |
| 모와의관계(A) | .43*** | .41*** | -.39 |
| 성실성(B) | | .07 | -.80* |
| A X B | | | 1.34* |
| R ² | .19 | .19 | .22 |
| ΔR ² | | .00 | .03 |
| F | 39.40*** | 20.17*** | 15.56*** |
| (df) | (1,172) | (2,172) | (3,1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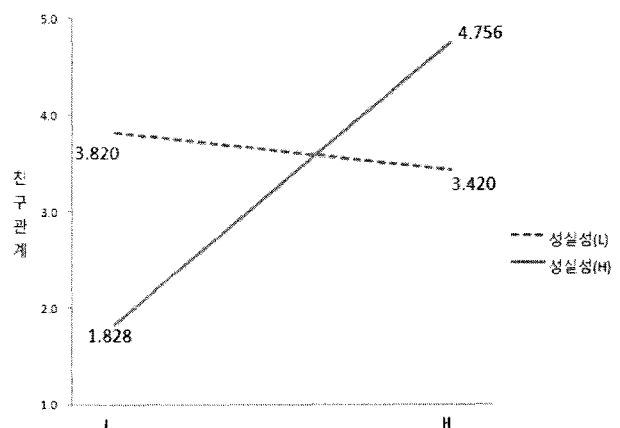
*p<.05, ***p<.001



아버지와의 관계

<그림 1> 남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아버지와의 관계와 성실성의 상호작용 효과

주: 회귀식 $Y=6.029+(-.723)X1+(-1.055)X2+(.314)X1X2$ 를 이용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X1값과 성실성의 X2값의 변화에 따른 친구관계 Y2값의 변화를 계산함.



어머니와의 관계

<그림 2> 남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어머니와의 관계와 성실성의 상호작용 효과

주: 회귀식 $Y=4.626+(-.308)X1+(-.706)X2+(.208)X1X2$ 를 이용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X1값과 성실성의 X2값의 변화에 따른 친구관계 Y2값의 변화를 계산함.

에서 보듯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 성실성의 정도에 따라 친구관계에 차이가 있어, 성실성이 높은 남자 대학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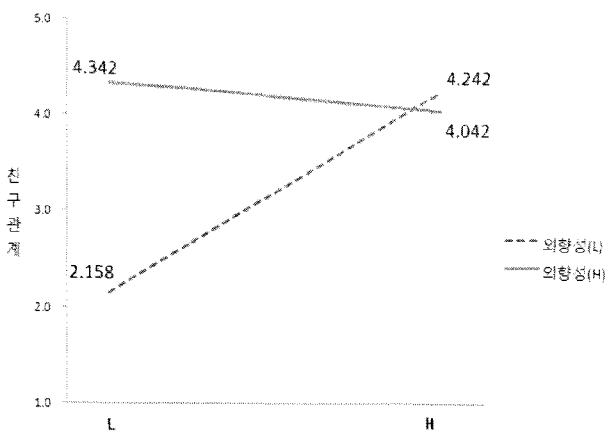
성실성이 낮은 남자 대학생보다 친구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성실성이

<표 6> 여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어머니와의 관계와 외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N=200)

| 변인 | 친구관계 | | |
|-----------------|----------|----------|----------|
| | Model 1 | Model 2 | Model 3 |
| 모와의 관계(A) | .30*** | .24** | .94** |
| 외향성(B) | | .23** | 1.10** |
| A X B | | | -1.27* |
| R ² | .09 | .14 | .16 |
| △R ² | | .05 | .02 |
| F | 19.35*** | 15.55*** | 12.14*** |
| (df) | (1,199) | (2,199) | (3,199) |

***p<.001



어머니와의 관계

<그림 3> 여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어머니와의 관계와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

주: 회귀식 $Y = .942 + (.67)X1 + (.695)X2 + (-.149)X1X2$ 를 이용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X1값과 외향성의 X2값의 변화에 따른 친구관계 Y2값의 변화를 계산함.

낮은 남자 대학생이 성실성이 높은 남자 대학생보다 친구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실성은 어머니와의 관계와 상호작용하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4, p < .05$)(<표 5> 참조). 즉, <그림 2>에서 보듯이 어머니와의 관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 때, 성실성의 정도에 따라 친구관계에 차이가 있어, 성실성이 높은 남자 대학생이 성실성이 낮은 남자 대학생보다 친구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성실성이 낮은 남자 대학생이 성실성이 높은 남자 대학생보다 친구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 대학생의 경우 <표 6>에서 보듯이 성격 요인 중 외향성만이 어머니와의 관계와 상호작용하여 친구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7, p < .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외향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외향성이 높은 여자 대학생이 외향성이 낮은 여자 대학생보다 친구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할 때는 외향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친구관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 참조).

IV. 논의 및 결론

1. 부모와의 관계, 성격 특성 및 친구관계의 성에 따른 차이

부모와의 관계, 성격특성 및 친구관계가 대학생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여자 대학생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김갑숙·전영숙, 2009)하며, 애착수준(안혜원·이재연, 2009)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친밀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친구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높고(도금혜, 2008; 오송희, 1999; Raja et al., 1992),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강미란, 2010), 친구관계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이숙희, 2007)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더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격특성 요인 중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반면, 개방성과 외향성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여자 대학생은 친화성과 신경증이 높으며, 남자 대학생은 성실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중학생이 남자 중학생보다 개방성, 친화성 및 성실성이 더 높다(조영란, 2005)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성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성실성이 절제, 책임, 계획성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연령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즉,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계획하는 등의 성실성이 높은 반면, 남자 대학생들은 대학생 시기에 이르러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계획과 준비의 필요로 인해서 책임감이나 계획적인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성실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여자 대학생의 경우 친화성이 높게 나타나, 여자 대학생은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성격특성이 높으며, 남자 대학생보다 관계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관계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는 정적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친구관계는 좋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연구결과(배성희, 1995)와 부모와 안정되게 애착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도 보다 긍정적이라는 연구(박은경, 1992)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신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녀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채혜연, 1999)와 다르다. 또한 여자 중학생에게 있어서 또래괴롭힘의 경험은 어머니와의 애착보다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신재은(2000)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척도가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상관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친구관계의 친밀도에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3.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

남녀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성격요인 중 외향성과 친화성은 친구관계와 정적상관을 나타내, 외향성과 친화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대학생의 경우, 개방성과 성실성 역시 친구관계와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여자 대학생은 신경증과 부적상관이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친화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덜 경쟁적이고 타협적이라는 연구(Graziano & Eisenberg, 199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중학생의 경우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비교적 긍정적인 대인관계 성향과 정적관련이 있고, 신경증은 부정적 성향과 정적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조영란, 2005)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자 대학생의 경우, 개방성과 성실성은 친구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개방성과 성실성의 예측력이 약하게 나타난 Belsky와 Barends(2002)의 연구결과와 대인관계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은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조영란, 2005)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여자 대학생의 경우 남자 대학생과는 달리, 개방성 및 성실성과 같은 성격특성은 친구관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반면에 신경증이 친구관계를 예측하는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자 대학생의 경우, 성격특성 요인 중 신경증만이 친구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신경증의 평균점수가 2.70(SD=.62)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고, 일반적으로 여자 대학생의 신경증 평균 점수(M=3.04, SD=.75)보다 낮은 것에 기인한 차이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자 대학생은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요인이 친구관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련성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부모와의 애착보다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장휘숙(2008)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즉, 친구관계는 가정 밖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로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남자 대학생의 경우 여자 대학생보다 부모와의 친밀도가 더 낮게 나타나, 남자 대학생의 친구관계는 자신의 성격특성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4.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의 중재역할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성격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와 성실성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와 성실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와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첫째, 남자 대학생을 살펴보면, 남자 대학생은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는, 성격특성 중 성실성이 높을 때 친구관계가 아주 좋았다.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성실성이 낮을 때 친구관계가 좋았다.

Rothbart 등(2000)은 성실성은 성인의 기질 요인 중 절제(effortful control)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주의를 조절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통제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자기통제를 잘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백혜정, 2007)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높아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실성이 낮을 때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들 중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등의 내용에 비춰볼 때 성실성이 낮다는 것은 좀 더 융통성이 있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성격특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업이나 생활양식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고 상황에 맞춰 변경 가능하다는 개방성을 보이는 성격특성을 지닌 남자 대학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친구관계를 잘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는 외향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친구관계의 친밀도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외향성이 높으면 친구관계의 친밀도는 높았던 반면, 외향성이 낮은 경우는 친구관계의 친밀도가 낮았다.

김희선(1998)에 의하면, 외향성은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정적상관을 나타내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며(최진희, 1999),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박용재, 2003), 대학생활에도 잘 적응한다(박범혁·정영숙, 2007)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높은 확신감과 가치감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및 어머니와의 관계는 남녀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격특성 요인 중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은 남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은 여자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에 있어서 성격특성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성격특성은 중재요인으로써 친구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 성격특성의 하위 요인들 및 친구관계의 변인들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상관분석은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나 방향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척도가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어서 둘 간의 관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자기 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질문지 외에도 관찰, 면접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자기 보고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 혹은 성격특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편적으로 살펴본 연구들과는 달리, 부모와의 관계와 성격특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처음으로 탐색하였으며,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간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의 중재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도 친구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성격특성이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임을 밝히는 한편, 부모-자녀 관계가 유아기나 아동기 및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인 대학생 시기에도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미란(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서표현성, 또래관계 및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운주·이은혜·Morton J. Mendleson(2001).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자원, 갈등 해결 방식 및 친구 관계망간의 구조 모델: 청년 초기, 중기, 후기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25-42.
- 고운주·이은혜·Morton J. Mendleson(2002).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5(1), 1-18.**
- 김갑숙 · 전영숙(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79-94.**
- 김순혜 · 김정원(2004). 대학생들의 심리적 분리수준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8(2), 83-97.**
- 김선주(2001).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친구관계, 우울, 외로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 이정운 · 이기학 · 한종철(1995). 1994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11, 80-197.**
- 김재은 · 이은순 · 강순화(1998).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9집.** 서울: 집문당.
- 김혜진(2001). 아동의 성격특성 및 자기 노출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1998). 대학생의 내 외향성, 인지양식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금혜(2008).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33-150.**
- 문이도(1993). 중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혁 · 정영숙(2007).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 박원모 · 천성문(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41-59.**
- 박은경(1992).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재(2003). 또래집단에서 인기도 차이연구-자아개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희(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에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변인섭(2000). 학급 내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성격특성, 학업성적 및 비학업적 자아개념 비교.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혜(2008).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 22(1), 84-96.**
- 성은경(2006). 애착유형에 따른 단짝친구와의 친구관계: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 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8(1), 153-165**
- 신지영(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특성간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혜원 · 이재연(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0(1), 77-88.**
- 양혜선 · 한종철(2004). 성인애착유형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연구. **연차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2004(1), 395-396.**
- 오송희(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태용 · 이기범 · Ashton(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18(3), 61-75.**
- 이숙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 고운주 · 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장정백 · 윤미현(2008). 초등학교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19(4), 685-695.**
- 장휘숙(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 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69-87.**
- 장휘숙(2001). 애착과 다섯가지 (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05-119.**
- 조영란(2005).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혜연(1999).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 및 또래 지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임 · 장휘숙(2007).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89-104**
- 최진희(1999). 또래 거명에 의한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영 · 도현심(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0(5), 125-13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

- 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6, 427-454.
- Belsky, J., & Barends, N. (2002). Personality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Being and becoming a parent* (2nd ed., pp. 415-43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Vol.1). N.Y. : Basic Books.
- Chu, J. P., Min, B. I., & Park, S. G. (2001). Perceived sources and coping methods of stress in a popul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9(2), 41-50.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 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Deary, F. De Fruyt, and F. Ostenderf(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 (pp.7-28). Tilburg University Press: The Netherlands.
- Goldsmith, H. H., & Campos, J. J. (1990). The structure of temperamental fear and pleasure in infants: A psychometric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1, 1944-1964.
- Graziano, W. G., & Eisenberg, N. (1997). Agreeablenes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394-1408.
- Gunnar, M. R. & Nelson, C. A. (1994). Event-related potentials in one year-old infants: Relations with emotionality and cortisol. *Child Development*, 65, 80-94.
- Horowitz, F. (1987). *Exploring developmental theories: Toward a structural/behavioral model of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Kenny, M., & Donaldson, G.(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9-486.
- Kerns, K. A., Klepac, L.,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323-342.
- Raja, S, N., McGee, R.,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othbart, M. N., Ahadi, S. A., & Evans, D. E. (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22-135.

접수 일 : 2011년 01월 15일

심사 일 : 2011년 02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17일